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 저수지 관리수위 준수 홍보활동

✎ 김육봉(=호남) 기자 | ☎ 승인 2025.06.27 10:21



[사진 제공=한국농어촌공사]

[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지 사면붕괴 및 월류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저수지 홍수기 관리수위 준수를 위한 홍보 현수막을 읍·면에 게시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홍수기(6.21~9.20)를 맞아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 및 수해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저류공간 확보를 위한 관리수위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며 관리수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사 관계자는 "이번 홍보활동은 단순한 안내를 넘어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홍수기 관리수위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진도지사는 총 34개소의 저수지를 관리·운영 중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은 물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는 등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설명했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홍수기에는 관리수위 준수를 통해 저수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재해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육봉(=호남) 기자** news1@polinews.co.kr